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담당: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0808 pspdin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날 짜 2022. 05.13. (총 1 쪽)

보 도 자 료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공문 발송

1. 오늘(5/13)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종합적 점검을 비롯해 인권실사 시행,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등 미얀마 투자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쿠데타가 발생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부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 하원에서 군부자금줄 차단을 위한 제재가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가스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 토탈과 쉘브론 역시 미얀마 인권상황을 이유로 사업철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군부의 인권유린에 눈감고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핵심 자금줄로 남아있다고 규탄했습니다.
3.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투자만 했을뿐 공사가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5/16)에 예정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가스공사 스스로가 밝힌 인권경영현장과 추진체계에 따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 투자 관련해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별첨.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내는 공문](#)